

1분기 제조업 내수·수출·설비투자·고용 ‘모두 악화’ 전망

산업연구원, 1분기 경기실사지수

수출 1·2위 품목 반도체·자동차
3분기 연속 매출 추가감소 전망
설비투자·고용, 2분기연속 하락

탄핵 정국 속 경제 심리 위축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교역 불확실성 우려가 극심해지면서 새해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1분기에 소비부터 투자, 고용까지 경제활동 전반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1,2위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모두 3분기째 연속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그나마 내수 불황속 한국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마저 동력이 꺼져가는 상황이다.

1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매출(88), 수출(91) 모두 3분기 연속 100을 하회하는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는 3분

〈국내 제조업의 주요 항목별 BSI〉

/자료=산업연구원

	현황 BSI					전망 BSI				
	지수			전기비		지수			전기비	
	2024 2분기	2024 3분기	2024 4분기	2024 3분기	2024 4분기	2024 3분기	2024 4분기	2025 1분기	2024 4분기	2025 1분기
시황	91	86	84	(-5)	(-2)	97	93	87	(-4)	(-6)
매출액	94	87	87	(-7)	(0)	98	95	88	(-3)	(-7)
국내시장출하	92	86	86	(-6)	(0)	96	94	88	(-2)	(-6)
수출	99	90	91	(-9)	(+1)	101	96	91	(-5)	(-5)
재고	101	101	98	(0)	(-3)	98	100	97	(+2)	(-3)
설비투자	100	98	95	(-2)	(-3)	99	97	95	(-2)	(-2)
고용	99	98	96	(-1)	(-2)	100	99	96	(-1)	(-3)
경상이익	91	85	86	(-6)	(+1)	94	92	88	(-2)	(-4)
자금사정	89	86	83	(-3)	(-3)	91	91	85	(0)	(-6)

기 연속 하락세다. 설비투자(95), 고용(96) 역시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주요 유형별로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모든 유형에서 100을 동반 하회한 가

운데 전분기 대비로도 모든 유형에서 동반 하락세다. 신산업(97)과 대형업체(94)가 100을 다시 하회하고, ICT부문(89)에서 2분기 연속, 나머지 유형 모두 3분기 연속 100을 하회하는 한편, 전분

기 대비로 기계부문(89)을 제외한 다수 유형에서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업종별로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무선통신기와 바이오·헬스 등 업종에서 100을 다시 하회하면서 모든 업종이 100을 동반 하회하고, 전분기 대비로 보더라도 무선통신기, 철강, 일반기계, 전유, 섬유 등 업종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하락하며 연초 매출 부진 우려가 제기된다.

2025년 연간 매출 전망 BSI 역시 91로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2024년 전망치(99)보다 낮아졌다. 산업유형별로는 신산업(99)과 소재부문(88)을 비롯해 ICT부문(93) 등 모든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대형업체(101)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했다.

업종별 매출 전망 BSI는 무선통신기기(105), 조선(101), 바이오/헬스(102) 업종만 기준치를 상회했다. 반도체(91), 디스플레이(97), 자동차(95), 일반기계(87), 화학(95), 철강(75), 섬유

(81) 등 다수 업종들의 경우 올해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체들이 경영활동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 및 재고 누증'(49%), '대외 불확실성 지속'(47%), '고환율 및 생산비 부담 가중'(42%) 등의 순으로 많이 꼽혔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지속'(41%)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율 관세 부과 영향'(24%) 응답도 적지 않았다. 반면 '중국산 제품의 대체 효과'(13%)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BSI의 항목별 응답 결과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 대비 증가(개선)를,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9일~24일까지 1500개 제조업체가 응답한 결과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韓, 4년새 가계부채 증가속도 OECD 1위

2019년~2023년 가계부채 비중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재작년 기준 186.4%, 27개국 중 6위
21개국은 2019년 대비 비중 낮아져

가계부채가 코로나19를 거치며 더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난 2019~2023년 사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반면, 다수의 주요국에선 이 같은 가구 빚 수위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내려갔다.

12일 OECD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86.4%에 달했다. 이는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이자 및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난 뒤, 가구가 온전히 소비·저축에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빚 규모가 1.86배임을 뜻한다.

한국은 해당 비중 비교에서 27개국 중 6위에 올라 있다. 더 큰 문제는 비중

의 증가 폭이다.

2023년 수치가 공표된 27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은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낮아졌다. 수치가 오른 나머지 6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유일하게 10%포인트(p) 넘는 증가 폭을 보였다. 이 비중이 2019년 173.7%에서 12.7%p나 커진 것이다.

그외 5개국은 증가 폭이 모두 한국의 절반 이내에 머물렀다. 호주 +5.8%, 멕시코 +2.8%p, 슬로바키아 +1.8%p, 룩셈부르크 +1.4%p, 스위스 +0.5%p였다. 총 38개 회원국 중 11개국(미국·일본 등)의 2023년도 수치는 아직 취합되지 않았다.

아일랜드의 경우 2019년 140.8%에서 2023년 104.7%로 36.1%p나 줄어들었다. 또 같은 기간 스페인이 -17.3%p(99.4%→82.1%), 영국이 -12.5%p(149.2%→136.7%), 포르투갈이 -10.7%

p(122.0%→111.3%), 이탈리아가 -5.6%p(87.7%→82.1%)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가구 빚은 최근 15년간 급증을 거듭했다. 해당 비중이 2008년 130.8%, 2011년 144.1%, 2014년 147.7%, 2017년 170.2%, 2020년 182.8% 등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르게 뛰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2000조 원을 넘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913조8000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은행권 대출총량 한도가 풀리면서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구 빚 증가는 민간소비의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5년도 소매유통 부문 전망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소비여력 감소 등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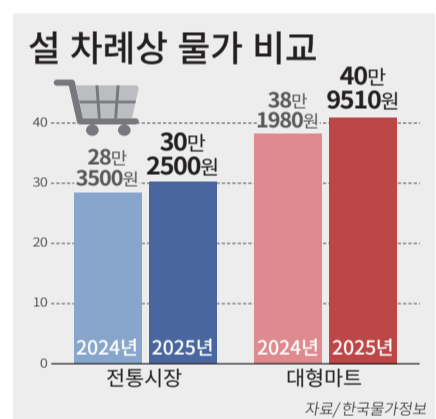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전통시장 30만원, 대형마트는 40만원 4인가족 차례상 비용 '역대최고' 경신

한국물가정보, 차례상비용 조사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물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서 설을 3주 앞둔 12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30만2500원, 대형마트는 40만9510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6.7%와 7.2% 정도 상승했으며,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약 35.4% 높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부 가격이 소폭 하락한 품목도 있으나 과일류와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전체 차례상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차례상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일류와 매년 변동이 잦은 채소류는 각각 전년 대비 57.9%, 32.0% 상승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두 품목으로 나타났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정유경 회장, 신세계 지분 정리여부 관심

» 1면 '정유진 신세계그룹...'서 계속

모친의 증여로 이마트 최대 주주가 된 정 회장이 이번에는 약 2140억원의 개인 자산을 투입하며 독자 경영 체제를 위한 절차 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마트 측은 정 회장이 성과주의에 입각한 책임 의식과 자신감을 보여주기를 위해 직접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이마트 지분 매수는 이마트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책임 의식을 위해 정 회장이 개인 자산을 투입하는 부담을 감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 하방 압력에 더해 이마트와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책임경영을 내세운 정 회장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의 핵심 사업인 할인점 부문은 최근 몇 년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마트 할인점의 영업이익은 763억원이었으나, 2023년 3분기에는 733억원, 2024년 3분기에는 705억원으로 줄었다. 경기 침체로 고객들의 소비가 위축되며 대형 할인점의 매출 증가세가 둔화된 탓이다.

정유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2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1등 고객을 만족시키는 본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본업 경쟁력에서 답을 찾자"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 문제도 정 회

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신세계건설은 그룹 내에서도 재무적 부담이 큰 회사로 꼽힌다. 신세계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와 공사 원가 상승,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 규모가 전 분기 대비 60% 증가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정 회장의 이마트 주식 매입으로, 동생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지분 정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정유경 회장은 주식회사 신세계의 최대 주주로 약 18.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유진 회장이 모친 이명희 총괄회장의 이마트 지분을 사비로 매입하며 독립 경영 체제를 공고히 한 만큼, 정유경 회장도 신세계 지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美 트럼프 취임일 원·달러 환율 '변곡점'

» 1면 '원달러 재점화...'서 계속

이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도 달러 가치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25만6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측치인 16만명을 10만명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예측치를 크게 웃도는 고용 호재에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관측했다.

시카고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이날 연준이 오는 3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5.5%로 전망했다. 전일 전망치인 56.2%에서 19.3%포인트(p) 높아졌다. 6월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44.6%에 달했다.

이날 달러인덱스도 장중 한때 109.98

까지 상승해 110선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오는 20일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일이 원·달러 환율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트럼프 1기 전후 금리와 환율 흐름을 보면, 트럼프 당선은 미국 시장 금리와 달러 가치의 상승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이번 공약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극단적인 정책을 내걸었고, 시장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공약이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시장 우려는 완화되고, 달러 가치 상승도 조금씩 진정되는 흐름으로 전환됐다"면서 "미국 금리나 환율 움직임을 보면 이번 트럼프 취임을 전후로 한 시기도 트럼프 리스크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